

세계가 주목한 조선의 사립 교육기관

한국의 서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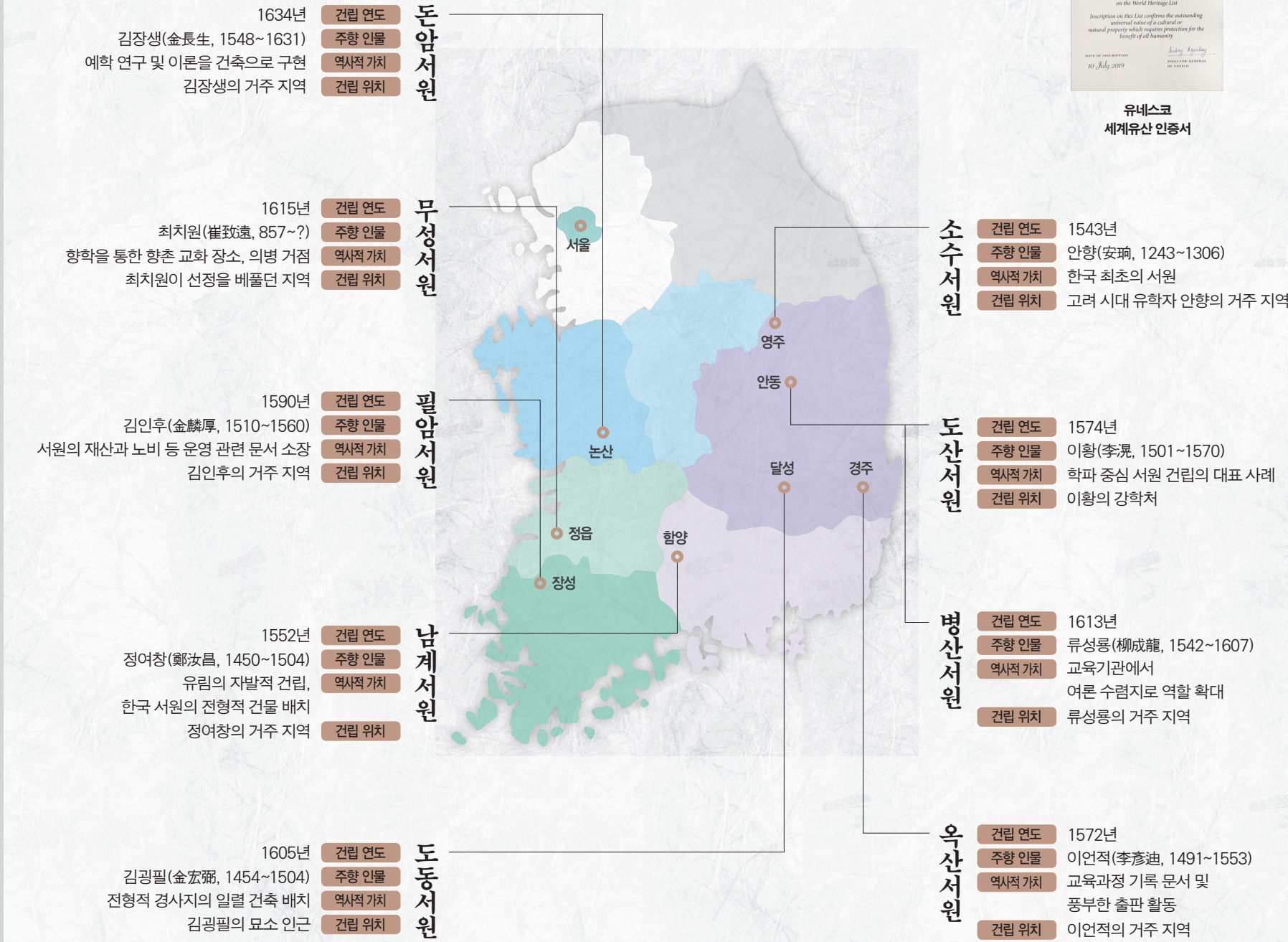
한국의 서원은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까지 조선 시대 지방 지식인들에 의해 건립된 대표적 사립 성리학* 교육기관이다. 현재 한국에 있는 670여 개 서원 가운데 대표적인 9개 서원이 2019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연속유산으로 구성된 9개 서원은 한국의 서원이 하나의 유형으로 정립되는 과정은 물론 성리학이 동아시아 전역에 확산되어 지역적 특색을 가진 사례로 큰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성리학자들은 강학과 성리학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세계를 이해하였고, 정기적으로 제향*을 봉행해 학파의 결집을 도모하였으며, 교류와 유식*을 통해 성리학에 부합한 향촌 교화 활동을 주도하였다.

- *성리학 중국 송나라 때 주희가 집대성한 유학의 한 파
- *제향 서원과 관련한 선현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의식
- *유식 자연 속에서 수양하고 휴식하는 일로, 성리학을 배우는 과정의 하나

서원의 공간구성

서원은 제향 인물의 연고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였으며, 성리학자의 전인적 교육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선택하였다. 서원 내부는 제향을 올리기 위해 지은 건축물이 위치한 제향 영역, 유생들의 공부와 숙식을 위해 지은 건축물이 들어선 강학 영역, 서원 관계자들 모임과 유생들 휴식을 위한 교류 및 유식 영역으로 나뉜다. 성리학자들은 지형과 자연경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하나의 서원 건축 전형을 완성하였다는 점에서 탁월한 가치를 지닌다.

‘한국의 서원’ 위치와 특징



9개 서원의 특성

영주 소수서원 紹修書院

한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서원이다. 한국 서원의 강학, 제향과 관련한 규정을 최초로 제시하여 이후 건립되는 서원에 영향을 주었다. 이와 관련한 문헌 자료도 풍부하다. 소수서원은 서원이 교육기관으로서 강학, 제향, 교류와 유식 등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함양 남계서원 濫溪書院

한국에서 두 번째로 건립된 서원으로 지역 사림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사례다. 건축적으로는 한국 서원 건축의 전형적인 배치 형식이 처음 등장했다. 각각의 주요 영역을 구분하여 하나의 축선상에 배치한 형식은 이후 건립하는 서원의 모범이 되었다.



경주 옥산서원 玉山書院

출판과 장서의 중심 기구로서 서원의 역할을 정립하였다. 건축적으로는 서원 영역 내에 교류와 유식 기능을 하는 누마루 형식의 무변루를 건립하였다. 옥산서원 이후 서원에 누마루를 건축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안동 도산서원 陶山書院

이황의 도산서당을 기반으로 건립되어, 서원이 학문과 학파의 중심 기구로 발전하는 과정을 입증한다. 강당은 특이하게 4칸 구성이며, 대청 서쪽에만 방을 두어 비대칭을 이룬다. 자연경관이 뛰어난 일대 경관을 묘사한 다양한 작품이 남아 있다.



장성 필암서원 華巖書院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한국의 서원 건립이 호남 지역까지 확산되는 과정을 입증한다. 기록물을 통해 서원의 경제적 운영 방식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다. 이전의 서원들이 경사 지형을 이용하던 것과 달리, 이곳은 평탄한 지형에 적합한 건축물 배치 형식을 적용하였다.



달성 도동서원 道東書院

서원 교육 방식의 구체적인 양상을 입증한다. 경사지를 활용한 서원의 건축 배치를 탁월하게 구현하였다. 건축물별로 여러 개의 단을 조성하여 외부의 자연경관을 시각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활용해 서원의 경사지 조성 기법을 잘 보여준다.



안동 병산서원 屏山書院

서원을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만이 아니라 만인소 등 사림의 공론장으로 확대해 사림 활동 중심지로서 기능을 입증한다. 많은 학자를 수용할 수 있는 큰 규모의 누마루인 만대루는 자연경관과의 조화가 탁월하다.



정읍 무성서원 武城書院

한국 서원의 발전 과정에서 지역 단위의 지식인 집단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성리학 이념이 확대된 서원의 양상을 보여준다. 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교육을 통해 향촌에 뿌리내리고자 한 홍학처에 설립되었다.



논산 돈암서원 濂巖書院

성리학의 실천 이론인 예학을 논하던 서원으로, 응도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예학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관련 저술이 출판되었다. 응도당은 동아시아 건축 이론을 예학 이념과 결합하여 완성한 건물로 한국에 유일하게 남아 있다.



상세 정보	제작 지원
 영상으로 만나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홈페이지 http://k-seowon.or.kr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가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은 조선의 성리학 교육과 사회적 확산을 주도한 교육기관이자 무형적·역사적 독특성의 탁월한 증거다. 성리학자들은 교육에 필요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과 물리적 시설을 완성하였다. 그들은 자신이 존경하는 지역의 인물을 제향함으로써 후세대에 본보기를 제시하고 강학을 통해 학문을 계승함으로써 학맥을 형성하였다. 또한 한국의 서원을 사회 교화와 정치 등 각종 활동의 근거지로 활용하면서 성리학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하였다.

서원의 주요 기능

- 성리학 가치에 부합하는 이상적 지식인 양성
- 지역의 대표적 성리학자를 사표로 삼아 제향
- 지역사회 공론 형성

건축물의 조화와 위계

서원은 제향과 강학, 교류와 유식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각각 사우, 강당, 누마루를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하였다. 이들 각 영역은 지형, 외부 공간, 기단, 담장, 대문 등을 통해 건축물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조화를 이루었고, 각각의 건물이 가지는 기능을 충실하여 연속적인 위계*를 부여하였다.

*위계 건물의 우선순위를 중시하여 위쪽에 두거나 중앙에 두는 등의 질서



한국의 서원

(재)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



고학을 위한 정립한 서원



영상으로 만나는 도동서원



역사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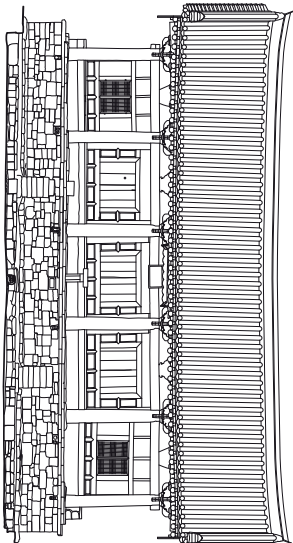
도동서원은 1605년에 한훤당(寒潭堂) 김광필(金光弼)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성리학 교육 시설이다. 정유재란 때 현종임에 있던 쌍계서원이 불타자 김광필의 외증손자 정구가 주도해 대니산 김광필의 무덤 아래인 현재 위치에 다시 세우고 보로동서원이라고 불렀다. 1607년(선조 40)에 왕이 '도동서원'이라는 이름의 현판을 내려 사액서원(賜額書院)이 되었으나 실제로 현판은 1610년(광해군 2)에 도착하였다. 도동(道東은 '궁자의 도가 동쪽으로 왔다'라는 뜻이다.

건물 배치 정형화와 예술성이 높은 서원

서원은 북쪽으로 나동강이 내려다보이는 기슭에 경사지에 자리하고 있다. 입구에 있는 400년 넘은 은행나무는 서원의 재건을 기념하여 정구가 심은 것이라고 한다. 정문 역할을 하는 수월루는 "찬 강물을 비추는 밝은 달(寒水照月)"이라는 주자의 시구에서 따왔다. 수월루를 거쳐 안으로 들어가면 환주문에서 굳게 닫힌 중심축을 따라 건물들이 좌우대칭으로 배치되어 있다. 강학 공간에는 강당 중정당과 기숙사인 동재(東齋) 거인재, 서재(西齋) 거의재가 있다. 중정당 외부의 '도동서원' 현판은 퇴계 이황의 글씨를 모아 세긴 것이며, 강당 내부의 현판은 선조의 사액 현판이다.



도동서원 현판(내부)



중정당



도동서원 현판(내부)

제향 인물 및 의미

사당에는 김광필의 위패를 가운데에 모시고 왼쪽에 정구의 위패를 모셨다. 김광필은 인간 교육의 기본을 담고 있는 <소학>을 머르고자 스스로 '소학동자(小學童子)'라고 부르며, 일상생활에서 유교 윤리를 엄격하게 실천했다. 연산군 때 무오사화 당시 김종직과 연좌되어 귀양을 간 후 감자사와 때 시약을 받았다. 사후 정여창, 조광조, 이인직, 이황과 함께 한국의 뛰어난 다섯 유학자를 일컫는 동방오현(東方五賢)의 한 분으로 상군관 문묘에 모셨다. 사당 내부에 김광필의 신비 정신을 기리는 벽화 두 점이 있다.

주요 문화재

달성 도동서원 (사적 제488호),
달성 도동서원 중정당·사당·담장(보물 제350호)



지도로 보는 도동서원



제향 공간



1 사당 김광필과 정구의 위패를 봉안한 곳으로 제향 의례를 시행하고 있다. 제향 인물과 관련한 비화가 좌우 벽 상부에 그려져 있다.

2 전사청 제향에 사용하는 제기를 보관하고 있으며, 제향을 준비하는 건물이다.

강학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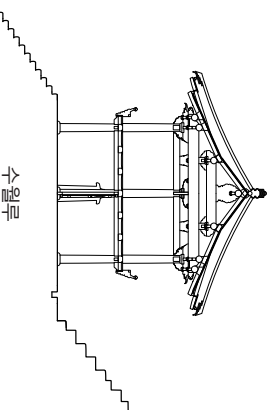
3 중정당 서원 강학 활동을 위한 핵심 건물이다. 원형과 서원 임원의 집무실과 유생의 강학을 위한 대청마루로 구성되어 있다.

4 거인재 5 거의재 유생들이 기숙과 개인 학습을 하던 건물이다.

교류와 유식 공간



6 수월루 서원의 교류와 유생들의 유식을 위해 건립한 누각이다.



기타 시설

- 9 고자사 서원 운영의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기거하던 건물이다.
- 10 유물 전시관 서원 및 사원과 관련한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10 신도비각 김광필의 생애와 업적을 기록한 기념비다.
- 11 보호수 김광필의 외증손자가 중정당 건립을 기념해 심은 수령 420여 년 은행나무다.